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교회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하와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발행처 : 월간제교회
창로회

충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환 편집인 : 노광현 편집국장 : 이형수

2002
신년
감사
예배

2002년 1월 1일(화요일), 오전 9시와 11시에 본당에서

2002년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1일(화요일) 오전 9시와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진다. 이번 예배에서는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라”(출 178-186)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만세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 교회는 충원의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도전이 될 것이다. 야무족족 충원의 모든 성도들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돌림으로써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라며, 진정으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드러나는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가능하면 제직들은 예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1부 9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란다).

원로추대 · 은퇴 · 장기근속자 포상식

오늘 찬양예배시간, 본당에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분들을 대상으로 원로 · 추대 · 은퇴 · 장기근속자 포상식을 가지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끝까지 믿음의 달음질을 하도록 격려하고, 충원의 성도들은 이들이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전도훈련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나사렛 홀에서

전도위원회에서는 가깝게는 교회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이방땅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에 주신 자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시: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② 시간: 12시40분~13시40분 ③ 장소: 나사렛홀 ④ 대상: 충원전도에 대한 헌원필수, 2002년도 선교지도 및 전도예정자, 지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

비로 잡습니다

지난주(12월 25일)까지 충원교회 9년 및 오묘한 그 많을 중 마태복음 22장 31-32절에서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주의 하나님'을 "죽은 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자의 하나님"으로.

지난 수요일에 매시지

시므온 (눅 2:25~35)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22절) -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 8일이 되자, 그의 부모는 할례를 위해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분은 단편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환영을 받지 못하셨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은 장차 예루살렘 성에 임하실 때에도 이처럼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임상하시기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와 하는 사람이 있으니"(25절) - 그러나 어떤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의 풍자를 받는 자였다(25절). 또한 그는 어떤 자였는가? 그는 "주의 그리스도들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였다(26절). 그는 진실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은 낮고 겸손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겸손하라. 왜냐하면 성령은 마음이 거만하고 청결하며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임하시니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27절) -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어린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는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천사의 의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메시아 의심에 대해 들어본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시므온이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26절),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마침내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오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이다(27절). 구주를 기다리던 사람, 오직 시므온만이 진실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어린 예수의 성정임상을 환영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주재이 되지는 말옵소서 대를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느니라"(29절) -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28절).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죽어도 좋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그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음을 나타낸다. 즉, 메시아임을 참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구주를 만나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참된 믿은, 그리고 그 믿음에서 솟아나는 참된 소망! 그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시므온의 모습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욕심과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가 노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라"(30~32절) - 시므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불렀다. 그의 기쁨은 전통과 물결과 세상적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며, 진실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진정한 주님의 도구였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 5:25) - 시므온처럼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삶,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참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전 14:15) 믿음으로 시작되자 멸망에 이른 '아나니아'와 '사바라'의 비극적인 종말을 기억하려(행 5:1, 10). 오늘도 할 자들을 넘어뜨리려나 마귀의 도전에 궤어 이르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라(유 1:20).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직적인 역사하심에 삶의 모든 부분들이 위락되고 이끌리게 하라. 남은 생애가 시므온처럼 진정으로 주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

"그나 나귀를 타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원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나 또 나귀를 데리고 복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겪어 동행한 바깥편으로 이르시니 문쪽 물이 그 우편에서 나오니 나귀와 그 사람이 소를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한 척을 찰랑한 후에 나귀 또 물줄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밖쪽에 이르니 다시 말한 척을 찰랑하고 나귀 물줄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말한 척을 찰랑하고 나귀 물줄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께 오리고 다시 말한 척을 찰랑하니 그가 내기 건너지 못할 것이 판지라 그 물이 청결하여 해탈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것이라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니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하시고 나귀를 인도하여 강가로 물이가게 하시거로 내가 물이안쪽 강 좌우편에 나귀가 십히 말더고 그가 내게 이르시니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내려보내려서 바위에 이르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위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십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번성하리라"(겔 47:1~9).

신학 칼럼

보통은혜의 명칭과 개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람에게 갚았이 내리주신다는 착안으로 은혜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온사와 사역들로 나타나는 차원에서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보통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은혜이다.

보통은혜라는 명칭은 선택받은 자에게 국한되는 특별한은혜와 대조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된다는 개념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말이다. 즉, 선택받은 자인데 선택받지 못한 자인데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보통은혜를 말할 때 두 가지들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는 사람들들을 도덕적으로 감화시킨으로써 죄를 억제하고 사회생활에서 질서 유지되도록 세속적 의(義)가 촉진된다는 것은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주시는 빛, 햇빛, 음료와 같은 의복과 주택과 같은 일반적인 축복임인 것이다.

보통은혜의 개념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서 특별한은혜와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은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① 은혜가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는 특별한은혜는 선택받은 자에게 제한된다. 그러나 보통은혜는 제한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임한다.

② 특별한은혜는 죄의 회로와 행법을 제거하고 사람의 내면적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함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 죄의 타락(오락)으로부터 그를 깨끗하게 하여 결국 죄의 회로에 이르게 한다. 한편 보통은혜는 결코 죄의 회로를 제거하거나 인성을 새롭게 하지 못하며, 다만 죄의 타락 영향에 대해 회개 시키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 그 결과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③ 특별한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니 모든 복음에 대한 의미에서 불가항력적이다. 반면 보통은혜는 보통은혜에서 신앙과 회개소의 소명은 언제나 비회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통은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신앙과 회개를 싫어하고 죄의 도박에 있기 때문이다.

④ 특별한은혜는 재창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여 구원의 모든 성질을 생성한다. 따라서 신앙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며 또한 영적인 열매를 산출케 한다. 반면 보통은혜는 단지 합리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여 사명으로 하여금 일반적 방식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의지에 동기를 주며 사람의 자연적인 욕망들에 호소케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은혜와 더불어 특별한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이 수 근 (목사, 8교구 지도)

읽고, 기억하고, 순종하라

(출 17:8~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르비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동안 광야에서 여러 다양한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 중 한 곳은 ‘르비담’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마시야 할 물이 부족함을 알았고 이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그를 원망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한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의심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설하리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5절). 그래서 모세는 그 장소를 ‘맛사’ 또는 ‘르비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투었음으로 모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르비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님이 하였음이다”(7절).

절제한 불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며, 홍해바다를 마른땅같이 걷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마린 것을 경험하고, 하솔에서 만나를 내리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 뒤에 마실 물 사건에서 나타난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이 모든 은사를 경험했지만, 르비담에 도착했을 때에 여전히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보았고, 생명의 본질을 절실히 느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란 언제나 많은 다른 종류의 이적과 표적을 보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움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불평으로 일관하였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이 르비담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들은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싸움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싸워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원수가 예서 손자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참고 창 36:12). 그들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 행한 일을 기억하리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 길에서 만나 너의 피로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찌르니라”(신 25:17-18). 아말렉 족속은 뒤에 갑자기 피곤과 허약함에 빠진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마치 카루저처럼 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필요한 것

이 처음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나님은 단지 요새만을 사용하셨던 지금도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싸우기를 요구하십니다. 지도되었던 모세는 여호와에게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고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파기마에 서리라”(9절). 달리 말해서, 모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뒤에 머물러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단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어 아니함은 이 무리로 일개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7). 아멘!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랐고, 모세는 다른 두 사람(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얹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오른쪽에서, 하나는 왼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리외지 아니한지라”(출 17:11-12).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은 그들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각각 모세의 손을 함께 떠받쳤습니다.

기억하여 기념할 것

우리가 그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 그것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이 아주 적습니다. 그들은 모두 애굽에서 살았었고, 싸움으로 광야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출 4:27). 반면에 아말렉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싸움꾼들이나, 그들의 고향은 광야입니다. 그들은 말과 무기과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예사가 사냥꾼으로, 아람은 집안에 머무는 소년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람이 집안에서 요리하는 동안, 예사는 언제나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전멸시켰습니다(13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14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첫 번째 전쟁을 책에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경외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책은 사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긴 것을 기록하고, 단지 순종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장차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하고도 명령하셨고, 모세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읽고 기억하고도 명령하였습니다.

진정한 승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국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백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사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모세와 맛사와 르비담에서 제단을 세웠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닮”(여호와와 나의 것)이라 하셨습니다(15절).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침해하려 시도한 것이 아주 보잘 것 없는 민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적들은 단합된 힘과 영토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아말렉은 결국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대항하여 싸우셨고, 마침내 이기

셨습니다! 사랑과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투와 모든 곳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아멘! 모세의 양손이 아론과 훌에 의해 공중에 들려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양손도 못 박힌 채 공중에 들려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악에 있었던 것처럼, 갈보리 산은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힘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권력 역시 힘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승리의 원인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물을 나누어 마실 수 없었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방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하하 아니니라.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히나 나 돌음이나 길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골 8:37-39).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기뻐하였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1).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죽음도 맞이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얻었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리라 나갔을 때, 모세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을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주도 하나님이고 믿음도 하나님이고 세례도 하나님이고... 삼위일체는 함께 일하시는 한 하나님입니다. 어려움과 제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밖으로 나가서 육체적인 싸움을 치러야 했고, 그와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깨어 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으며, 특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독교적인 삶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그들이 매순간마다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원인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고, 믿었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가 기록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세련된 것입니다. 온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련은 많은 것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행했던 여호수아처럼 믿으십시오. **A**



김성관 목사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눅 22:19)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죽으심을 예비하심

오늘은 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누가복음 22장의 첫 구절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절기가 아직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대략 삼 년의 세월 동안 일하셨고, 이 거룩한 식사는 그가 이루신 사역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삼 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이 그를 배반했습니다(3절). 예수께서 식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15절).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자신의 장례를 이미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얹었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이 진실로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며, 군중들은 ‘호산나’ 하고 헛되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 모순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애굽 전역에 내려진 죽음의 계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회생일이 필요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유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떡을 받아 먹으라고 요청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 떡이 하나님의 어린양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닫고 먹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식탁에 초대할까요? 그들은 모두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모임을 가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식탁에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라

성찬을 행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분의 생애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많은 지도자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셨습니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한 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벧전 1:19). 아멘! 나사렛의 예수는 잘못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서도 그분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왕이시지만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없는 생애를 회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분은 축광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찬을 행할 때, 가장 값비싼 그의 생명이 대신 지불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교훈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귀조놀이를 하시거나 하찮은 이야기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타협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마 4:17).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5). 아멘!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골 2:3 참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막 9:7)!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며,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죄사함을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나병환자와 눈먼 자를 고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죄조종을 통제하십니다. 그분은 바람과 폭풍을 멈추게 하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사 85:10). 그의 자비는 죄인을 구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은 의와 평강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평화를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 여러분은 마귀의 노예였지만, 십자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모든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벌어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기억하라

주의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장차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 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이 뿐만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처음으로 온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신약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림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연합될 것입니다.

예수의 초성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의 식탁에 여러분이 초청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선교기도회

누가 우리에게 대담할 것인가?

'선교'를 친숙하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선교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친숙함으로 하는 일보다 '피곤'하다.

같은 의미에서, '선교기도회'를 처음 찾을 때 나의 마음은 의무감과 피로감에 휩싸여 있었다(생각해 보라, 주일 오후 4시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내에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기도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같은 사람이 선교와 관련이 있는지,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 기도 중에 하나님은 무거운 내 마음의 짐을 내리시고,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메게 하셨다. 내 삶의 짐을 내리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자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 나를 쓰시고자 하심도 알게 하셨다. 그 곳에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권이었다. 내 무거운 인간적인 의무감을 벗고 가벼운 하나님의 의무감을 지게 하는 것이었다.

누가 우리에게 대담을 줄 수 있는가? 그 대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와 이 일을 시키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질문은 우리의 고민과 계획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담은 기도 중에 온다.

우리의 질문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으신다. 누가 우리에게 대담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담할 차례이다. 기도의 무릎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대담하여야 한다. 선교기도회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김병현 선교전도사)

2002년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기도회

일 시 : 16:00-16:40

장 소 : 새가정부실(교육관2층)

세계관 15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가 한 말이다. 모든 것이 비이성적으로 돌아가던 중세에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다. 우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天動說)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진리였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연구한 바로는 지구도 일정한 법칙에 따라 돌고 있다는 것이다. 갈릴레오가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법정에 서게 된다. 그가 발견한 지동설(地動說)을 부인(否認)하라는 것이다.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가. 역사를 보면 그는 상당히 고집한 것 같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고수(固守)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것인가. 결국 그가 택한 것은 목숨을 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법정 앞 계단을 내려오면서 말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의 발견은 왜 그를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했는가? 인간의 이성이 있었던 때부터 그 때까지 조금도 의심없이 진리로 자리잡은 것들이 모두 부인(否認)되기 때문이다. 갈릴레오의 발견을 인정한다면 천동설에 근거한 모든 사물들이 일시에 무너지게 된다. 또한 비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과 철학, 과학 등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과학의 허(虛)를 폭로(暴露)한다.

칼 포퍼(Karl Popper)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오류관념가능성의 원칙'(Falsifiability Principle)이라는 것을 말했다. 모든 과학적 이론은 그것이 오류로 판명되기 전까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들은 세상의 지식들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별들이 충돌해서 지구가 생겼다고 모든 생물이 우연히 생겨나 진화했다거나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허무주의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법정에 선 갈릴레오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세상이 듣지 않는다면 뒤돌아 서서라도 말해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도 천국은 있다..."

세상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 정치가, 경제인, 죄가 있는 법관과 군인, 죄가 있는 사람과 사람들. 그 모든 죄가 드러난다면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외면해야 하고 예수를 부인해야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 일이다.

그래도 유쾌한 갈릴레오가 되지 않았는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리라..." (단 1:43)

(다음주에 계속) (인침역 목사)

14기 LMTC 훈련생

정탐훈련을 마치고

안 경 호 (LMTC 훈련생)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여호와의 구원을 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 33:29)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세상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저까지 항상 나의 곁에서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외면하며 잊고 살았지만 주님은 한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고,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며 항상 축복하셨습니다.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에게서 항상 보호하시려 나를 위해 싸우셨던 주님을 생각하니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으면' 주님은 저를 사용하되 않으면 안되는 것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난 그 선택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꾸무무 제게 두려움을 없애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제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에서 M.T.를 강단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모임에 가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금요일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눈으로 보게 마음이고 오직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에 도전받고 회개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통해 다시 한 번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토요일에 있을 정탐훈련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버리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만났을 때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의 종으로서만 천국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결단하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계속하며 교회로 향했지만, 또 다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천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M.T.를 갈까? 어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엔 두려움과 주님의 말씀이 서로 교차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쳐있었지만 만난 필리핀 형제 두 분께 지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여시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고 대와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예비하신 이들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길을 다니며 내게 보내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많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준비되지 못하고 무지한지 알게 되었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숙달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할 수 없었음을 깨달았고, 한국에서의 그들의 처지와 생활 그들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여 가까이 가지 못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천국복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을 만났지만 준비되지 못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의 마음은 너무 아팠고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정탐훈련에서 저희 조가 가장 적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참으로 사랑해서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의 할 일을 알았습다. 항상 용기있게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마음이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나로 아버지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수리 청년들이...

(고·대·청년부 전도사님들의 싸움들)

♥ 해 그들 부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요
11:에서 찾고자 한다.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성인, 군주, 석학,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들의 전기가 사형선들을 읽는 독자
들은 사형집으로 갈 수감되어 그들과 대화하여 그
뒤를 따라가고자 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은 시
대의 요구에 따라 재평가 되어 어제의 진실과 사
상성이 오늘의 가치이나 현실로서 그 한계를 드러
낸다. 그들은 대담하고 후회로 영향을 끼치는 결
사한 사람들도었지만 죽고나 후한일이든 한계사
한에서 애의 일이 부딪히는 사람들아였었다.
역사적으로 자식이나 자식들, 석학들 열여
수십년쯤 "내가 곧 길이로 진리요 생명이야"라
고 성언을 함을 가지고 말한 자가 없었다.
최소 2년여 학을 쓴 중요한 만인이 있지만 그 중
에서 예수와 그의 만인이 가장 중요하였다. 내건
고 등부터 개개인이 예수와 개개인이 만났으니 선
정한 인생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보았다. 삶
의 출생지인 예수이며, 죽고나 예수이고, 끝도
없는 생명의 삶이 있기 마땅히 한다.

조오재(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유래하게 되는 날이
 주 앙으로부터 임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특별히 읽었던
 것. 2002년을 맞이하는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에게 새로운 해를 '유래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 말씀은 음과 묵사
 함이 유래하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인 그 어느
 시간보다 즐거운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
 나 그러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기록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惡이 할을 받으라(행
 3:19)라는 권고에 고개 숙을 두어만 하십시오.
 우리 안에 권고를 향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없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
 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로부터 '너희 믿음이
 온 자라'고 칭찬과 감사의 소리가 사방에서 울
 리(사후 1:3)하는 첫마의 소리가 들리니 소
 합니다. 또한 하루 하루 신앙을 유지하는 것
 어려워서 고등부와 말씀에 더욱 복음을 굳
 붙잡고 오�히려 그들에게 양생을 전할 수 있는
 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부으로 하려고 이 땅
 모든 고등학교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존귀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밀
 는 모든 피박과 한난 속에서 너희 인내와 믿
 의하며 하신다의 여러 회교에서 우리가 친히
 람함이라(사후 1:4)라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배이 이제 우리 고등부를 향한 고백이 되
 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하고 고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과 평강이
 전 (2) 우리 모든 고등부의 젊은이들
 를 기도합니다.

박철홍(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 요한 사도는 요한삼서 4장에서 “내가 내 자녀들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슬
거운 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달이려면, 혹 후배들이 혹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즐거운 말이 없었
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
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

쓰시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거지된 즐거움은 많았지만 참된 즐거움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깥으로 즐거움을 얻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절은 이러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다시오는 2002년을 앞두고 이 말씀을 마음
에 새겨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종필(강도사, 대학부 부지도)

♥ 얼마 전 우리 대학부 새가충무에서 양쪽발만 한
 지가여 이런 말을 했단다. 저기는 예수님을 아
 직 만나지 못한 거라고,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
 것도 아직 못봤다고... 그러던 어느 토요일
 평택대학부 대학부 집회에 참석해서 강도에
 가 있는 남자 친구를 만나러 설례하는 가슴을 뽐
 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차 밖을 보다 보니 문득 자
 한 학에 이정보를 보게 되었고 또다시. 오직정
 한 학에 몇 km만남은 이정보를 보면서 내가 성경
 충만하다며 과연 몇 km나 남았을까? 라는
 의문에 대저는 저의 고백을 두들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도가 된 사랑하는
충현의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들이 충만하도까지 이르리니"(엡 4:13b). 여러분
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목적지까지
과여며 Km나 남았습니까?

김정신(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 천령의 시기는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7개에 든 몸과 마음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젊음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도록 합니다. 그 때와 나중에 창세以来的 건물의 모방 안에 경건과 능력을 담은 새벽이 있을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되도록 합니다. 시기가 자람에 따라 훌륭한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안에 무를 겸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되기를 원함으로,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께 충절을 소망하며 이루어야 합니다. 절 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한나인을 사모합니다!

~ ~ ~ ~ ~
~ ~ ~ ~ ~

이수경(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 청년들을 심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부딪혀
그 고통으로 힘들어 하거나, 비틀거리거나, 안간
힘을 쓰며 버티고 고민하는 여러 청년들의 모습
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힘든 모습을 보
면 정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맞
서서 정답을 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새겨들
어 보았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마 12:30)

을 한 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장혜구(전도사, 청년1부 부지도)

만평



당신의 몸은 성전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랑하는 천년 1부 지체 여러분! 어느덧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패상의 순간과가 필요 하든 모든 것을 공화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자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의 성사 시제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지하는 제자로 부르신 대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애미대에는 모든 물에서 지킴과 견제하는 영성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엄당하게 승리하는 영성이 전사로서, 나의 삶과 전례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찬된 예배로서, 예수님을 믿고 오직 죽어 가는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의로써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령의 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밝아 오는 새해에도 우리들의 이러한 삶의 목표로 잊지 않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경배(전도사, 청년1부 부지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8교구 자양 2구역

할렐루야 아기 예수 오심을 경배 드리며 이 기쁜 시간에 자양 2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입으로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된다고 불평을 일삼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 년 넘게 늘 빛진 자로 구역에 배에 참석케 하고 저의 형편과 처지를 형통케 하시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은 십 년 넘게 구역원들이 이사나 큰 변동 없이 참여해서 구역원 사이의 정이 유난히 돈독합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같이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며 새벽마다 구역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해 주시는 구정희 권사님, 또 잘 웃으시고 활달하며 사교성이 좋은 송 집사님, 굳건한 믿음으로 구역의 활력에 되어주는 신 집사님, 뉘ते 집사직분을 받고 부끄러워하시는 저의 시어머니 박덕영 집사님, 그리고 직장관계로 잘 참석하지 못하는 염 집사님, 유 집사님, 오 집사님. 다같이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늘 기다려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를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심길의 종으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의 소유임에도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슬픔의 옷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값없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한 사랑이 동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사람은 죄의 빈곤함이 물러간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구역에게 해 주시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사오니 실행하여 열매 맺는 구역 되게 하옵소서.

(오준분 구역장)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중 엄' 자매를 소개합니다



행당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두 아들이 어릴 때 교회에 다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나가지 않았습니. 두 아들의 대학 진학 무렵 사업이 어려워서 재산의 손해를 보고 병까지 얻게 되었는데 남편 친구분의 권도로 충현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자 마음이 평안해서 회개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가솔하여 속직하는 자식을 돌이오게 하는 부모님의 심정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하나하나 절차를 밟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 주는 새가족부 집회가 참 좋습니. 이제는 나의 갈 길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았으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강 주 원' 형제를 소개합니다



13년 동안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에 열심인 아내와 아들의 인도로 충현 교회에 나와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비로소 교회에 등록하고 교구 모임에 나갔다가 집사님의 인도로 새가족부에 나왔습니.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했지만 사업장의 문을 닫고 교회에 나오는 주일에는 어느 때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내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속전 (새가족부 통신원)

+ 양요일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눅 5:18-20)

1교구 김성훈(남33) 폐에 바람이 드는 증상으로 두 차례 수술을 했는데 정해진 병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교구 김선옥(남74세) 감기와 뇌수막염을 심하게 앓다가 뇌성마비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정신 활동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영혼과 몸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2교구 윤여원(남59세) 의식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5교구 권진구 성도(남55세) 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올해 제 등록한 새신자입니다. 믿음으로 낙망치 말 것들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고 왔는데 모인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질서해 예수님 앞에 닿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유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하나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귀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사] 만주에서의 성경출판과 전도사업

중국을 통하여 한국선교를 시도한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만주에 진출했던 선교사들도 저 책주주의를 고수하고 있던 한국에 대해 선교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 시도는 스코틀랜드 경교회의 만주진출에서 시작된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는 1863년부터 북중국과 만주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중국선교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선교사들 중에 존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1872년부터 만주 우장과 봉천에서 선교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접한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던 중 1871년 경에 동만주, 두만강 유역에까지 와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다가 1874년부터는 의주 청년 이용찬과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등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었다. 이들 청년들은 로스와 매킨타이어 목사를 통해 신자가 되었고 1876년에는 세례를 받으므로 첫 한국인 수제자가 되었다. 이 때는 1884년 우리 나라에 공적으로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한국에 입국하기 8년 전이었다.

로스 목사는 1877년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을 펴낼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선교가 금지된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기 한국인들의 협조를 받으며 성경번역에 착수하였다. 1878년에는 서삼룡이 만주에서 로스와 매킨타이어 목사와 접촉하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의주 청년과 더불어 성경번역사업을 도왔다.

그러하여 1882년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 출판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었다. 1883년에는 사도행전이 번역되었고, 1887년에는 신약전서가 '예수 성경전서'란 이름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것을 흔히 로스역이라고 부른다.

선교사가 한국에 정식으로 입국하기도 전에 이미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다. 서삼룡 등은 번역된 한글성경을 가지고 의주를 거쳐 황해도 장연군 소재 등지에서 전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가 바로 1884년에 설립된 소래교회이다.

이상에 앞서 몇 가지, 외국선교사들이 입국하기도 전에 이미 세례받은 한국인 신자가 생겨나고, 성경 일부가 번역되고, 한국인에 의한 교회가 설립된 일은 매우 특기할 일이다.

이처럼 한국인 성경번역자들은 일차리나 호구지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기독교에 접하고 스스로 그 진리를 보다 확실히 배우기 위해, 혹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로스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열렬한 신앙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유산이 오늘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주일 충훈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초기 한국 교회의 장로로 충훈가(한성시)(1905년에 처음 수록되었던 이 충훈가는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 구세선Dr. R. Grierson이 한국에 창립 충훈가로 성전예식을 위해서 작 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709년 아이작 왓슨박사에 의해 성찬인 충훈가로 적시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작곡자는 헨리 웰즐리 목사(1832년에 작곡하였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님과 그의 마지막 성찬찬을 회상해 보는 충훈가로, 우리는 주님이 그때 한식 마차의 인생에서 생각해볼 때에다 은혜를 받는다. 26절 말씀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 **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12,33). 또 잔을 가지시 사해하시고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내 피를 마시라** 하시고(27).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28)"라고 말씀하셨다(4,5,6).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부를 때 14절은 남자 성도가, 25절은 여자 성도가, 그리고 36절은 모두 함께 불러왔는데 이는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이 아주 적절한 찬양의 방법입니다.

(한정원찬원)

나의 예수님요

노 지 은 (예배나무 부교사)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깨끗하게 버티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을 타타며 남포로 혼자서 해매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교적이었지 못하고 저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 평평 울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올 때면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더욱 소망하였고 그런 행복을 찾아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친구의 소개로 오게 된 천원교회는 중학교 3학년이던 제가 보기엔 너무나 캄캄 놀랄만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곰곰이 생각했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선 모르는 채로 좋은 친구 만나는 재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

“우리의 죄를 대심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일마다 뱀 뱀이고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대해 알고 싶어서 교회에 더욱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누구에게나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비록 듣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으니 더없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벌써 이만큼 앞으로 저만큼

이 삼 열 (전도사, 사랑부 부지도)

벌써 이만큼이나 흘렀다. 사랑부에서 보낸 2001년의 시간이 많이다. 어느새 흘려간 365일의 나날들만큼 나와 우리 모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랐으며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는지 궁금하다.

한 여명의 열기가 사그라지면서 겨울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진다.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며 눈내리는 겨울이 오면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다시 내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린다.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따뜻한 소망을 품은 채 말이다. 그때 벌써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어느새 이만큼 흐른 것이다.

우리 사랑부는 지난 주일 예배시 교사들이 모여서 성극을 발표하고 저녁 예배가 끝난 후에 교사들이 다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성극을 준비하고 발표하느라 보낸 3주 동안의 시간은 사랑부라는 구심점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었고,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사랑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물을 나누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며 열심히 수고한 사랑부 선생님들에게 서로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벌써 이만큼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로의 노고를 다독여주는 모습은 확실히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 우리 앞에는 앞으로 저만큼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간을 저만큼 앞서 계셔서 매시간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를 그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 저만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까? 벌써 마음이 두근거리며 설레온다.

Catechism

15. 구원이라는 확신에 관하여

(1)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사랑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분의 계속적인 중보기도와, 성령의 내재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의 확실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사탄의 유혹과 선악을 안에 남아 있는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때때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명과 징계를 주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음 1.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벧전 1:5).

물음 2.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다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요 7:24-25)

(2) 구원의 확신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믿음의 양식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땅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물음 1.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확신히 보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은 것을 보충 받고 있습니다(고 1:21-22).

물음 2. 구원의 확신과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골 1:10).

물음 3.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요한 3:14).

바른 찬송가



박 경 배 (소년부 교사)

‘속도가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빌게이츠의 말은 이제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명제로 자리잡았습니다. 현대문명은 속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을 시키기 하고 빠른 영어와 음악만이 인기가 있습니다. 음식은 패스트푸드와 인기가 있고, 입시전쟁, 취업전쟁 등사는 것 자체가 전부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속도 추구의 배경에는 속도 강조로 짧은 시간 안에 보다 효율을 높이라는 다분히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 성장을 거듭한 나라에서는 외국인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하니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같은 풍조는 교회학교 예회는 아닙니다. 15-16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부르기를 꺼려하던 템포의 복음송은 이제 어느 곳에 가도 자연스럽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빠른 템포의 흥겨운 복음송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흥겨워하니, 지루한 교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도시키기에겐 재미있는 교회에 가자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좀더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일학교 교육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설교시간에 설교 듣기를 싫어하고, 찬양대는 찬송의 의미를 모른 채 형식적인 찬양을 부릅니다. 이러한 교회 교육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목격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친구들은 경건한 5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합니다. 예배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돌발적 충동으로 교회에 열려를 끼쳐기도 했습니다. 예배시간 1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는 천국일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풍토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겨운(?) 찬송가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노력 중입니다. 기존의 교회교육을 그 근본체계를 바꾸려 했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조 있는 기도인 찬송가를 부르는 노력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년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찬양대 아이들이 찬양을 즐기 있게 부러려 노력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른 찬송가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교회의 결정과 그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정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31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일새벽기도회

일시: 1월 1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교구위원회 월례회

일시: 1월 5일 15:30
장소: 선교관 5층(당화실)

4. 이미동 전도의 총회

일시: 1월 3일(월) 11:00
장소: 영아부실

5. 권사 임원회 전체 기도회

일시: 1월 2일(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별 세

1. 김원준 성도

(김원준 집사의 부친, 14교구 목4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2. 윤광석 성도

(윤익중 성도, 이덕수 성도의 장남, 2교구 삼익
구역) / 25일 별세, 27일 장례

충현동산(모재) 산역하실 분

자격: 남자 세례교인으로서 58세 미만
문의: 사무국 ☎552-8200 40408

차량관리부 봉사자 모집

주말 차량관리부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처: 교육관 지하1층 차량관리부 (교 284)

교정전도회 교사모집

교정전도회는 2002년 1월 7일~11일까지 신촌정보통신학교(충현산학) 겨울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이에 교사로 하나님 사역에 봉사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교사로 봉사할 분은 교정전도회 박영덕 전도사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랑부 교사 모집

재활의학, 정신과, 간호과, 특수교육과 등을 전공한 50세 미만의 전문직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랑부 교사실 ☎552-8200 40397

1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헌신)		수요일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I	II
1	6	김진채	강모용	이병학	최대현	이정우	전은배	김국자	이수자	
	13	이종석	전종렬	임무천	박영식	원용철	김중선	송정옥	양선자	
	20	이하영	권명옥	이병욱	정운석	이 훈	박용기	김영아	심효숙	
	27	차신득	김종구	김은호	김영길	최무길	김의철광로	박효지	김은숙	

2002년도 전반기 장악성 선발 안내

서류접수: 2001년 12월 23일~2002년 1월 13일(3주간)
눈술면접: 2002년 1월 26일(토) 오전 10:00 교육관 5층
발 표: 2002년 2월 장기(토) 후 주간총회를 통하여
문 의: 교육관 1층 104호 교육행정과 장학담당(교 471)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31(월)	1(화)	2(수)	3(목)	4(금)	5(토)	6(주일)
한승규	김종준	정영래	유준현	양병진	윤순익	김옥운

교회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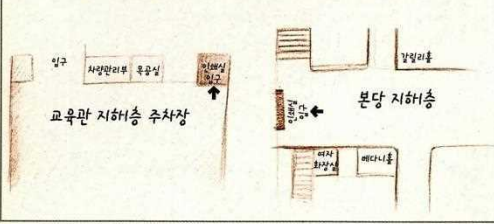


예배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주일 예배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한세, 재건, 주일학교 예배)		
	IV	오후 3:00	본 당
	V	오후 5:00	본 당
(세례교인,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한 달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1:00~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인쇄실 이전

교회 인쇄실이 이전했습니다. 잘 찾아오시고 더욱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남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1년 12월 첫주~2002년 1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관: 2001년 7월~11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1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1년 1월~11월), 금전출납부, 영수, 영수증출 등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82	신영호	2	대학부		1087	박규서	7	예배다부	김보연(17)
1083	방명옥	1	루디아		1088	강경현	16	루디아	김경희(15)
1084	여운영	1	청년2	이승득(1)	1089	오경석	19	청년1부	유진영(19)
1085	문보라	19	청년1부		1090	유송희	19	청년1부	
1086	임은숙	1	루디아		1091	김옥선	19	청년1부	김월분(8)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현중보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가 복음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에 능력이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함께 지어지 가게 하소서.

⑥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질서

김의철	조신근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김영철	김기환	최대현	엄필선	강모용
이병학	윤인현	최대현	엄필선	강모용
오정현	이 훈	남순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인재	김종구	최무길	김진채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정철	이하영	박민진	김인환
이방옥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최기홍	이갑재	전용봉	전종필	이정우
김다은	황영일	신 철	한승규	김영수
정종식	김한기	한승철	이명수	안동현
황만우	김구형	최유준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대두	박종우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철호	박진섭	최지훈
노영환	박철구	정정길	신상수	강철형
고재승	김영은	김영은	김영은	김영은

■ 부목사

이종석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작병관
김병태	서경진	정해성	이준경	박민진
여성기	류병희	노경목	이종철	김영준
여국진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종연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 찬양감독 김경인

■ 어전도사

정현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순익
김옥운	한영원	김연식	홍순애	이유주
김갑자	안태순	최희성	백명자	김정현
조옥자	장덕원	김정진	장혜국	최문실

■ 교정전도사 박양덕

■ 선교전도사 정은희 장기영

■ 단기평신전도사 최은하(신학)

■ 협력선교사 허요섭(이탈리아)